

현대의 옷 갈아입은 불화의 변신

엄기원 개인전... 12월 18일~31일 인사동 이노스페이스서



엄기원의 '신중탱크'. 조선 신중탱의 무기를 든 모습을 현대적으로 해석했다.

“고려와 조선 불화를 모사하고 이를 변용해 우리시대의 미감에 맞는 불화를 창안해 내교자 했습니다.” 불화가 엄기원이 12월 18일~31일 인사동 이노스페이스에서 전시를 연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모두가 진검' '괘불' '천신' 등 총 13점을 선보인다. 작

레이저전 '신중탱크' 주목

'모두가 진검' 변상도 현대화

가는 전통 도상을 모사하는 것은 물론과 감하게 새로운 시도를 해 눈길을 끈다. 그중에서도 신중탱이 레이저전 등을 든 군인으로 등장한 '신중탱크'는 주목할 만하다. '신중은 부처님 회상을 지키는 수호신'이어서 조선불화에서는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창과 칼을 들고 나오셨어요. 저는 탱크 타고 레이저전, 로켓포를 든 군인모습으로 신중을 등장시켰어요. 현대불화 신중들은 현대의 무기를 드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했어요.”

'모두가 진검'은 검은 비단 바탕 위에 금니 선묘로 비로자나불 모임을 형상화한 작품으로 고려 화엄경 변상도가 모태다. 비로자나 설법 모임에 사부대중이 가득한데 대부분이 현대 의상을 입고 있다. 모두를 밝은 얼굴로 소, 호랑이, 곰, 사자 등과 어울려 놀고 있는가 하면 휠체어를 탄 어린이를 자애로운 얼굴로 보살피는 보살의 모습도 있다. "가족들이 오손 도손 여러 생명체들과 거리가 없이 어울리는 우리시대의 극락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일심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전시의 대작은 세로 260cm에 달하는 산청 울곡사 괘불탱 축소 모사본이다. 원본의 크기는 세로 827cm에 달하는데 화가는 세부 장식 하나 소홀함 없이 훌륭하게 옮겨 그렸다. 색감과 필선 모두 원본과 비교해서 손색이 없다. 엄기원 작가는 서울대학교 동양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용인대 회화과 대학원에 다시 입학해 이태승 교수에게 불교회화를 본격적으로 공부했다. (02)730-6763 정혜숙 기자

찬불동요 창작곡 '풍경소리 37집' 발표

'빛이 나는...' 등 8곡 담아

내 마음에 그려보자 부처님의 둥근 마음 내 마음에 그려보자 부처님의 따스한 미소/나의 마음 고단할 때 부처님의 말씀처럼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겨 빛이 나는 우리가 되요...



'풍경소리 37집' 표지

시' 추운겨울 이웃과 함께 하는 따듯한 마음을 담은 덕신 스님 작사의 '그리워 그리워' 등 총 8곡의 노래를

담았다. 풍경소리 찬불동요 창작곡집은 지난 1994년 1집 발표를 시작으로 매년 두 장씩 여름·겨울 불교학교를 위해 발표해왔다. 풍경소리 음반은 전국 단위 연주회 및 강습회의 교재로 활용되며, 또한 일선의 어린이법회와 불교학교에서 찬불가 교재로 사용되고 있다. 정혜숙 기자

풍경소리 37집 '빛이 나는 우리가 되자' (작사 박성희 / 작곡 정유락 / 노래 이시윤) 중에서 좋은 벗 풍경소리에서 찬불동요 창작곡 서른일곱번째 앨범 '풍경소리 37집'을 발표했다.

이번 음반에는 보시하는 마음을 길러 눈처럼 빛나는 어린이가 되고자 하는 바람을 담은 '빛이 나는 우리가 되자' '보

영화 '풍성', 불경 현대무용으로 '재탄생'

2013년 문화계 결산

2013년 한 해 불교 문화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전통과 현대의 접목을 시도한 다양한 불화들이 선보였고 부처님의 경전과 일대기를 공연으로 표현한 작품들도 눈길을 끌었다. 힐링멘토 스님들의 공중파 방송 출연도 주목할 만하며 영화 부문에서는 다큐 '길위에서'가 5만 관객을 돌파해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전시 현대적 안목으로 해석한 다양한 작품도 눈에 띈다. 회상 스님의 '낮은 고무신 전(展)'은 스님들의 일상과 수행의 여정을 상징하는 고무신에서 자라난 무성한 새싹들을 통해 각자 수행자리가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가섭의 미소와 혜가 스님의 구법행이 꽃으로 피어난 불화가 양선희 작가의 '꽃드니 미소 짓네'도 꽃을 통해 부처님의 마음을 담았다. 이 밖에도 수행자의 내면을 나비로 표현한 성륜 스님은 작품과 외판전각가 여공 스님의 '칼끝장엄'도 주목할 만하다.

공연 부처님의 말씀을 현대극으로 표현한 작품도 탄생을 대중들의 눈길을 끌었다. 마목 무용단 윤민석 대표는 '바르도'에 이어 '능엄경'을 해석한 작품을 통해 부처님 말씀을 현대무용으로 표현했다. 파사무용단의 2013년 야심작 '뫼타. 일곱 걸음의 꽃'도 대중들에게 불교문화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었다. 불교 밴드의 창단도 눈길을 끈다. 8명의 스님으로 구성된 밴드 '우담바라'는 대구 능인선원 주지 혜장 스님을 단장으로 8명의 스님이 뭉쳤다. 또한 경북 불화 청량사(주지 지현)는 성인 7인조 밴드 등근소리와 어린이 4인조 밴드 꼬마풍경을 창단 첫 데뷔무대를 가졌다. 이밖에도 부산 해인정사의 포크 락 밴드 해조음이 한 달에 한번 하우스콘서트를 여는 자리를 마련해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다.



회상 스님의 '낮은 고무신'展



쓰리디렉터채널의 '보로부두르'

2013년에는 전통과 현대의 접목을 시도한 다양한 불화들이 선보였고 부처님의 경전과 일대기를 공연으로 표현한 작품들도 눈길을 끌었다. 다큐 영화 '길위에서'는 관객 5만을 돌파했다.

전시 현대적 안목으로 다양한 해석

공연 부처님 말씀 시작적으로 표현

영화 영화 길위에서 5만 관객 돌파

방송 힐링멘토 스님 공중파 출연

영화 올해는 그 어느때보다 영화가 풍성했던 해이기도 하다.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과 일상을 담은 다큐 영화 '길위에서'는 관객 5만을 넘었다. 독립영화로서는 이례적인 기록으로 대중들에게 불교의 선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박영철 감독은

최초의 한국불교 영화 '마음의 고향'을 리메이크했다. 함세덕의 희곡 '동승'을 원작으로 한 '마음의 고향'은 1949년 개봉됐지만 6.25 이후 필름이 유실됐다. 최근 세상에 다시 알려졌다. 그리고 2013년 박 감독에 의해 '내 마음의 고향'으로 재탄생했다. 이밖에도 원효 스님의 일대기를 기록하고자 하는 김선아 감독의 다큐 영화도 촬영 중에 있으며 내성천 지킴이 지을 스님의 4대강을 주제로 한 다큐 영화 '모래가 흐르는 강'도 개봉해 관심을 모았다.

방송 올해는 법륜·정목 스님이 SBS 힐링캠프에 출연해 불교 포교에 한몫을 했다. 특히 법륜 스님의 방송은 높은 시청률을 보

여 힐링캠프 특집에도 다시 출연하는 쾌거를 이뤘다. 마가 스님 역시 KTV 시대공간 Q를 통해 힐링 전도사 역할을 했다. 불교 방송은 하반기 개편을 통해 포교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계층프로그램을 신설해 불교 방송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고자 하는 결단을 보였다. 쓰리디렉터채널(대표 최세영)의 다큐 '세계 최대의 불교유적지, 불멸의 이야기 '보로부두르'도 기대를 모은다. 3D 다큐로 제작된 이 작품은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를 3D 다큐 영상으로 담아냈다. 내년 5월 부처님오신날을 즈음해 스카이가 HD, EBS 그리고 불교방송 IPTV에서 만날 수 있다.

정혜숙 기자 bwjhs@hynul.com

비공 스님 아세아 서울 아트쇼 참가

'원시성 야생성' 시리즈 등 20여 작품 선보여

선화가 비공 스님이 아세아 서울 아트쇼에 참가한다. 스님의 작품은 12월 25일~29일까지 강남 코엑스 아트홀 아가갤러리(A31)에서 만나볼 수 있다. 스님은 이번 전시에서 원시성 야생성, 구도자의 향기 등 시리즈 작품 20여점을 선보인다. '원시성 야생성'은 홍술에 붓으로 그림을 그려 조각, 팔만대장경 제작 기법을

사용했다. 사람과 동물의 형상을 생략과 축약해 반추상 작품을 탄생시킨 스님은 인간의 원시 세계를 작품으로 표현했다. "원시성과 초현대성이 만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 자유의 세계를 무의식에서 고집내내 고대 원시인들의 정서를 담고자했습니다. 이는 지적이 능력이 개입하기 전의 세계로 시비분별이

없는 선의 세계와도 그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존재의 탐구는 탐구할수록 근원으로 돌아간다고 말하는 스님은 원시적 야생성에서 그 근원의 의미를 찾아냈다. 선은 공을 표현하는 단순한 표현 양식이라고 스님은 말한다. 그리고 이 공의 세계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을 진공묘용이라고 스님은 간주한다. "공이라는 것도 실제로 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림을 통해 이를 표현



비공스님의 '원시성 야생성'

하고자 했습니다. 공을 통한 자유로운 방종이 아닌 현실적으로 잘 쓰이는 것이죠. 저는 이를 예술로 차용하고 있습니다." (010)5141-5888 정혜숙 기자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진 다보탑과, 영엄한 돌미륵이 있는 남해 미륵암

- 남해 독일마을 바로 앞 -

귀의삼보 하옵고,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진 다보탑과 영엄한 돌미륵이 있는 남해 미륵암에서 갑오년 새해 해맞이 관음기도와 방생법회를 봉행합니다

갑오년 새해 해맞이 관음기도 접수합니다. 각 사찰은 물론 개별 불자님들 신청바랍니다. 2014년 1월 1일 남해 물건항 어부림 숲 앞 바닷가에서

대웅전 중창불사 중

49재를 잘 하는 미륵암 - 제사, 영구 위패를 모십니다 승진기도, 임용고시기도, 사업자를 위한기도, 일년가족축원 접수중

계좌번호 : 농협 831075-51-023041 / 국민은행: 969801-01-298041 / 예금주: 미륵암

미륵암 주지 청운 합장

주소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물건리 방조어부림 앞) 문의 : 055)867-0776, 2259 / 홈페이지 주소 : www.미륵암.com

스님이 쓴 장편소설 하늘다이아몬드

이 작품이 세계명작이 되는 건 한국불교가 세계명작이 되는 것이다. 불자여러분의 손으로 만들어 보자! 지혜와 감동이 살아있는 소설! 스님이 쓴 소설! 재미있는 소설!

불자님이 반드시 읽어야 할 이야기가 이 책속에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간화선 마스터! 금강경 마스터! 깨달음 마스터!** 당신 삶의 질이 확 UP 달라집니다.

이 세계는 당신의 성숙을 위해 당신을 끝없이 돕고 있습니다. 기쁨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당신은 그걸 알아차려야 합니다. '아, 세계는 내 모자란 부분을 이런 방식으로 채워주는구나.' 그런 태도를 가질 때 당신의 삶은 커 갑니다. 당신은 이 세계가 빛 (완성체·부처)으로 계획한 존재입니다. - 저자 석호스님의 메시지

※ 선물, 법보시용으로 최고의 가치가 됩니다.

지은이: 석호 A5(145×210) 291쪽 값 13,000원 ☎ 053) 253-1923 연화씨

교보문고, 영풍문고, 인터파크, 알라딘, YES24 및 전국불교서점 판매 중 이 책의 홍보에 인생을 걸어보실 시·도별 책임자 1분씩 모십니다. (포교사 및 퇴직자 환영)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932-27 연화출판사 ☎ 011-9377-1923